

Since 1946

1등에겐 이유가 있다

정치 외교 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https://politics.korea.ac.kr/>

딱!

이런 학생 정치외교학에

- 역사 및 사회 과목에 흥미를 느낀다.
- 분석적,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나다.
- 정치 및 사회현상의 배후를 이해하려는 호기심을 가졌다.
-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다.
- 매일 접하는 뉴스가 딱딱하지 않고 흥미롭게 느껴진다.

1946년 설립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학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앙일보의 학과 평가가 진행된 수년간 국내 정치학 분야 최우수 학과 및 최상위 등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인 대학평가인 <QS 세계대학랭킹>에서는 2012-2017년 5년간 정치학 분야 40위권을 달성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51-100위권을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8명의 뛰어난 전임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우수하고도 책임감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학과 ?

9시 뉴스를 보면서,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정치는 너무 복잡하거나 나오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정치와 외교가 우리의 일상과는 먼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많은 행위가 이미 정치적 행위이며, 평범한 우리의 삶도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우선,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공동체의 운영과 관련한 영역은 모두 정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와 반장 선거는 모두 정치활동인 셈이죠. 게다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되는 정치를 통해 공동체 내의 제한된 재화를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만큼, 입시나 취직 등 여러분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도 정치가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국가와 세계로 확대해 나가면서 그 구성원들의 공존과 번영을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학문이 정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9시 뉴스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과의 엔진

호기심 많은 당신이 주인공!

정치학이 가장 관심을 두는 공동체는 국가입니다. 한 국가는 긴 역사를 통해 인간의 권력, 이익, 그리고 신념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누적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떻게 구성 및 운영되며, 왜 특정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려면, 단순히 드러난 사실들뿐만 아니라 그 맥락과 구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구성원들 행위의 이면까지 파악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사와 사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당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당신! 바로 정치외교학과의 기다리는 인재입니다.

전공 수업

정치학의 가지들

정치학을 커다란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나무에는 여러 개의 가지가 있겠지요. 정치학이라는 나무에서 자라난 커다란 가지들에는 '정치사상' '비교정치' 그리고 '국제정치'가 있습니다. 정치학이 뿌리내리고 있는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것이 '정치사상'입니다. 상이한 역사와 맥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온 정치체제나 제도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하는 것이 바로 '비교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어 국가 간의 정치 또는 비국가적인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입니다. 정치외교의 '외교'는 바로 '국제정치'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별 프로그램

해외복수학위제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국내최초의 학과단위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하여 4년 만에 고려대학 및 와세다대학 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인턴십 및 교류 프로그램

스웨덴 룬드대학, 대만 국립정치대학, 동아시아 연구원(EAI), 정당 사무국 등 국내외 우수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정을 맺어 인턴 및 교환학생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과주도 학생행사

매년 <아남민국 모의국회> 등 날카롭게 현실을 분석하는 학생들 주도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당워크샵

전공자들과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도층 인사의 강연을 듣고, 식사를 나누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유대감을 다지는 학과의 잔치입니다.

진로탐색주간

매년 일주일에 걸쳐 정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을 초빙, 진로탐색주간을 엽니다. 정치외교학과생에게는 어떤 진로들이 열려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선배들이 강연과 문답을 통해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고래(高來)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정외과 졸업생들이 재학생들과 식사하며 진로 선택과 직업적 현실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정치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한다, 정치사상

정치사상은 정치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철학적인 이해를 추구합니다. 정치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사상을 배우며 정치에 관한 인간의 탐구가 그려 온 역사적 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서양고대·중세정치사상, 서양근대정치사상, 현대정치철학, 법과 정치사상, 인권 등의 과목들을 공부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를 분석하라, 비교정치

비교정치는 다양한 정치체제, 국가, 집단들 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탐구합니다. 보다 간단하게는 여러 국가의 국내정치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심층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경제론, 정치제도론, 정당론, 의회와 입법과정, 한국정치론, 중국정치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치심리학 등 폭넓은 이론과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과목들이 여기 속합니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정치

글로벌 시대,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할 때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국제 무대에서 국가들 또는 여러 행위자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협력을 살펴봅니다. 특히 안보, 경제, 환경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둔답니다. 국제정치론, 20세기 국제관계사, 현대국제안보론, 국제무역의 정치경제, 국제기구론, 국제정치와 윤리, 한국외교정책론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정치 외교관의 미래

국가를 고민하다

한국에 민주정치가 도입된 것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짧은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가 지금의 한국처럼 안정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또한 짧은 시간에 압축적인 경제성장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한국에서 자라난 여러분은 성공의 비결과 함께, 성공이 낳은 위기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위상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시에, 과거를 고찰하고 현재의 문제들을 반성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정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정치외교학과에서 함께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과 부설 연구소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http://peacekorea.or.kr/>)는 1988년 3월 설립된 이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산하에는 평화통일 연구센터, 민주주의 연구센터 및 EU 연구센터 등이 있으며,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평화연구>를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펼칠 미래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통찰하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세대와 젠더 간의 갈등, 과도한 경쟁이 낳은 불안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전쟁, 핵확산,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을 넘어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경쟁의 맥락과 구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다양한 정치체제 및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소통능력으로 무장한 인재들에게는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 외교관, 행정관료, 언론인, 학자, 사회운동가, 사업가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처럼 정치외교학과에서 시작하십시오.

여기까지! 이것만은 명심하자

미디어, 선생님, 부모님은 모두 ‘공부하라’는 말과 ‘꿈을 가져라’라는 말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결국 성공하고 꿈을 이룬다는 말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라고 다그치는데, 꿈은 사치가 아닌가?’ 하는 냉소적인 생각도 들죠. 그러나 딱딱한 하루를 살고 있고 성적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적다고 해도, 결국 여러분이 들어선 길에서 앞으로 그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모님이 시키니까, 다들 해야 한다고 하니깐 공부하고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인생의 경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수험생으로 보내는 시기는 매우 짧지만 소중한 시간입니다. 입시에 쫓겨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며, 어떤 일을 하면서 매일을 살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고민의 결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첫발을 좀 더 현명하게 잘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용어상식

권력(Power)

권력이란 사회 안에서 개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규정하는, 정치학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는 격언에서 드러나듯, 사람들은 쉽게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에 대해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킬 때, 세금을 낼 때, 수능시험에 응시할 때, 여러분은 이미 국가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과 제도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권력과 그 권력의 제도화,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정책 등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습니다.

길을가는 후배에게

이때는 꼭!

1학년

대학생으로서 기본 교양을 길러야 할 시기입니다. 필수과목인 “정치학전공입문”을 들으며 기본적인 정치학적 소양을 쌓고, 다양한 분야의 교양수업과 책을 통해 상상력을 기르는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 계속 활용하게 될 외국어나, 대학에서 요구되는 학술적 글쓰기를 익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학년

본격적으로 정치학 전공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치학의 기본이 되는 정치사상사와 국제정치론, 비교정치개설 등의 수업을 들으며 정치학을 구성하는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한국정치론, 중국정치론 등 개별국가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현실 사례에 대한 지식을 쌓기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3학년

더욱 다양한 정치학 이론들을 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논문을 읽으며 저자의 논리를 분석하고 현실사회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들을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4학년

그동안의 공부를 바탕으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교양과 전공수업을 통해 배양한 식견을 바탕으로 사회를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갖춘다면, 이후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전공과목

1학년

정치학전공입문

2학년

서양근대정치사상, 비교정치개설, 국제정치론, 한국정치론, 중국 외교정책론, 국제법과 국제정치

3학년

현대정치철학, 인권, 현대정치이론, 정당론, 한국외교정책론, 국제정치경제론, 국제정치와 윤리, 동아시아정치론, 민주주의론, 정치문화

4학년

헌정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비교정치경제, 현대외교정책결정론, 개발과 원조의 정치, 국제규범과 제도, 정치심리학



졸업 후의 진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지도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계, 외교관 시험과 행정고시 합격을 통한 관계, 로스쿨 진학을 통한 법조계 진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언론계, 학계, 재계에서 활동하거나,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학계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여론분석가

정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보좌관

관계

외교관, 일반직 공무원, 국제기구직원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언론계

신문사 및 방송사 기자, PD

재계

금융, 유통,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임직원